

광주 남구청 이승윤, 대통령기 양궁 '금 명중'

결승에서 9발 중 8발 10점 만점...공주시청 김하준에 6-0으로 완승
광주여대 이수연·광주체고 혼성단체전·순천여고 조한이 등 은메달

광주 남구청 이승윤이 제41회 전국 남녀 대통령기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승윤은 지난 15일 광주시 남구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하준(공주시청)을 6-0로 일축하고 정상에 올랐다. 이승윤은 9발 중 8발을 10점에 명중시키는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여자대학부 결승에 오른 이수연(광주여대)은 때마침 쏟아진 폭우 때문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 안서운(한체대)에게 무릎을 꿇고 은메달에 그쳤다. 시·도대항전으로 열린 고등부 혼성단체전에서는 최우진과 남지현(이상 광주체고)은 대구에 발목을 잡혀 은메달에 머물렀다.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는 광주 대표 광주시청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기보배·최민선·장유정·이기영이 팀을 이룬 광주시청은 16강전에서 부산(5-3), 8강전에서 경남

(5-3)을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인천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일반부 혼성단체전에 출전한 광주대표 이승윤과 최민선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순천여고 새내기 조한이는 여자고등부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결승에 진출, 은메달을 따냈다. 조한이는 여자고등부 필리피케이션 70m에서 338점을 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총점 합계 1358점으로 예선 라운드를 1위로 통과했다. 마지막 승부에서는 예선라운드 2위로 결승에 오른 한솔(홍성여고 3)에게 4-6으로 패해 금메달을 놓쳤다. 조한이가 활약한 순천여고는 여자고등부 단체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시·도대항 단체전에서는 대구가 종합우승, 대전이 종합 준우승, 경기도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제41회 전국 남녀 대통령기 양궁대회에서 입상한 광주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한편, 대회가 열린 경기장 한편에서 선수들을 뒷바라지하며 응원에 나선 '양궁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양사모)이 봉사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양사모는 광주 중·고교에서 활동하는 양궁 선수자

녀를 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봉사단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흥군청 김장우, 아시아육상선수권 '값진 동'

세단뛰기 결승서 16.59m
항저우 AG서도 메달 기대

김장우(장흥군청)가 아시아육상선수권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육상연맹(회장 김용주)에 따르면 김장우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제25회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부 세단뛰기에서 16.59m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다.

김장우는 13일 남자 세단뛰기 결승에서 2차 시기에 16.52m를 뛰어 중간 순위 1위에 올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압둘라 아부베이커(인도)가 4차 시기에 16.92m, 히카루 이케하라(일본)가 6차 시기에 16.73m를 뛰어 김장우가 3위까지 밀렸다. 김장우는 6차 시기에서 16.59m를 뛰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제21회 아시아육상선수권' 이후 8년 만에 입상이다. 김장우는 "개인 최고기록에 못 미쳐 아쉽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경쟁해서 동메달을 획득



김장우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제25회 아시아육상선수권' 남자부 세단뛰기에서 동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데서 기쁘다"며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더 좋은 기록으로 메달을 획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상생 신고 달렸다

10개국 300여명 선수 참가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남해안컵 상생발전 협력,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요트 문화 대중화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시작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지난 13일 돛을 올렸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출발해 동영 도남항을 거쳐 16일 여수 웅천마리나까지 남해안 바다를 누비는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총 26척의 요트와 300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했다.

박정환 정부부지사가 13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23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전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박정환 부지사는 "남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세계에 알리고 해양레저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드높일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통해 더 많은 세계인이 남해안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무궁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남해안 공동 개발이 3개 시·도의 지역 동반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로, 해외에서도 극찬받은 순천만 국제박람회 등 다양한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는 전남에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세계 각국의 요트가 바다를 가르며 합창 경연을 펼치는 2023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여수시, 통영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한다.

3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새로운 요트항로 개척과 함께 요트산업 활성화를 통해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양관광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세계 42위 본드로우쇼바 워블던 테니스 우승

40위대 선수 우승은 사상 처음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42위·체코)가 워블던 테니스 대회(총상금 4470만 파운드·약 743억원)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본드로우쇼바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13일째 여자 단식 결승에서 온스 자베르(6위·튀니지)를 2-0(6-4 6-4)으로 제압했다.

우승 상금 235만 파운드(약 39억1000만원)를 받은 본드로우쇼바는 생애 첫 메이저 대회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2019년 프랑스오픈 준우승에 이어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 두 번째 도전에 우승을 일궈냈다.

워블던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40위대 선수가 우승한 것은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이 시작된 1975년 이후 올해 본드로우쇼바가 처음이다.

워블던 여자 단식에서 지난해까지 가장 낮은 세계 랭킹으로 우승한 기록은 2007년 비너스 윌리엄스(미국)로 당시 31위였다. 또 상위 32명에게 주는 시드를 받지 못하고 워블던 여자 단식을 제패한 것도 올해 본드로우쇼바가 최초다.



워블던 여자단식 우승 본드로우쇼바. /연합뉴스

우상혁 6년만에 아시아 챔피언 타이틀 되찾아

아시아육상선수권 높이뛰기 우승
2m28까지 실패 없이 모두 성공

'스마일 점프' 우상혁(27·용인시청)이 6년만에 아시아육상선수권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다. 우상혁은 1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승에서 2m28을 넘어 우승했다.

경기는 1m95에서 시작했지만, 우상혁은 2m15에서 첫 점프를 했다. 우상혁은 2m15, 2m19, 2m23, 2m26, 2m28을 모두 1차 시기에서 가볍게 넘겼다. 이날 쿠사레(인도)와 타란 카에오담(태국)가 2

m26까지는 우상혁을 추격했지만, 2m28의 벽은 넘지 못했다. 쿠사레와 카에오담은 2m26으로 2, 3위에 올랐다. 우상혁은 우승을 확정짓는 뒤 바를 2m33으로 높였다. 아쉽게 2m33에서는 3차례 모두 바를 건드렸다. 우상혁이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한 건, 2017년 인도 부바네스와르 대회(2m30) 이후 6년 만이다. 지속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2019년 카타르 도하 대회에서는 2m19로 공동 7위에 그쳤다. 2021년에 예정됐던 중국 항저우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취소됐다.

한국 육상이 아시안선수권 금메달을 딴 것도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년 부바네스와르 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과 여자 100m 허들 정혜림(광주시청)이 금메달 2개를 따냈다. 2019년 도하 대회에서 단 한 개의 메달로 따지 못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남자 400m 계주(이시문·고승환·신민규·박원진)와 남자 세단뛰기(김장우)에서 동메달 2개를 수확해 노메달 사슬을 끊었고, 우상혁이 우승하면서 금메달도 다시 썼다. 우상혁은 17일 오후에 입국해 8월에 열리는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대회와 9월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을 위한 준비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엘리멘탈
2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4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엘리멘탈
5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총.뎃.구, 파이아하트
6관	엘리멘탈, 악마들
9관	여름날 우리
7관 씨네키움	범죄도시3, 극장판 피노키오 위대한 모험, 귀공자 스피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극장판 이블다운 그 이터널, 총.뎃.구, 슬기로운 아내 수업
8관 씨네키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기획공연 포커스 장하은 콘서트 'Once Again'
일시 : 2023-07-18(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